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PERIJEE AND ME
가제 : 페리지와 나
저자 : Ross Montgomery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6년 3월 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글자도 못 읽고 친구도 없는 열한 살 소녀에게 찾아온 신기한 생명체, 둘의 특별한 우정

학교가 있는 큰 섬과 똑 떨어진 작은 섬에서 엄마, 아빠와 셋이서만 살던 케이틀린에게 뜻밖의 친구가 찾아왔다. 작은 섬에는 놀거리도 별로 없는데 부모님은 항상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학교 친구들은 놀리기만 할 뿐 같이 놀려고 하지 않아서 케이틀린은 늘 외로웠다. 그나마 아침마다 배로 큰 섬까지 데려다 주는 어부 아저씨에게 가끔 속 얘기를 털어놓을 뿐이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던 날, 앞으로 6주 동안이나 홀로 심심하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하던 케이틀린은 해변에서 새우처럼 생긴 묘한 물체를 발견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이 물체는 살아 있었다. 그 자그마한 생명체는 그 날부터 케이틀린의 곁에 꼭 붙어 다니며,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형제처럼 가까워진 케이틀린과 신기한 친구의 우정을 알게 된 어른들은 기겁하고 말았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케이틀린이 새 친구를 만난 건, 아침부터 죽은 해파리가 해변을 온통 뒤덮었던 방학식 날이었다. 부모님 대신 통학을 책임지는 어부 아저씨가 간밤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고 하늘에서 유성이 비처럼 쏟아졌다고 이야기해주었지만, 케이틀린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방학 동안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재미있게 놀 생각으로 가득했으니까. 사실 반 친구들은 케이틀린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았다. 섬에서 통학하느라 어쩔 수 없이 가끔 지각을 할 때면 게으름뱅이라고 놀려댔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부탁하자 ‘글자도 못 읽는 멍청이’라고 놀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어서, 케이틀린은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다. 엄마는 바닷속 생물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해양 생물학자고 아빠는 우주에 사는 생명체를 다 아는 우주 생물학자인데, 케이틀린은 글자만 보면 마치 불이 깜박이듯 글자 하나하나가 자꾸 깜박거리서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학교 성적은 맨날 꼴등이고, 엄마는 성적표를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내쉬지만 케이틀린은 글자를 못 읽는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씩씩하게 학교에 다니고, 방학을 맞아 용기 내어 반 친구들을 집에 초대도 했지만, 다들 깔깔 비웃으며 거절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다 무시당하고 내쳐진 기분에 우울했던 그 날, 기적처럼 페리지가 찾아왔다.

한 없이 쑥쑥 자라는 페리지를 없애려는 어른들, 친구를 구하러 길을 나선 소녀의 작은 모험

열한 살 케이틀린과 처음 만날 날만 해도 페리지는 새우 모양에 크기가 정말 작았다. 케이틀린은 페리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집에 데려와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페리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었다. 물론 그 모든 일은 부모님 몰래 둘이 있을 때만 조용히 이루어졌다. 어릴 때 쓰던 아기 욕조에서 목욕도 시켜주고, 저녁 먹고 남은 음식들을 몰래 챙겨두었다가 먹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몇 가지 숫자와 말도 가르쳤다. 페리지는 케이틀린의 말이라면 고분고분하게 다 잘 따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뭐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게 먹어대서 그런지, 페리지의 몸은 쑥쑥 자랐다. 어느 날 밤에 둘이 해변에 나가 기대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날에는 어느새 케이틀린과 비슷한 덩치가 되어 있더니, 그 후로도 계속 몸집이 커졌다. 먹성 좋은 페리지를 더 이상 몰래 숨길 수 없게 되자, 케이틀린은 엄마 아빠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한다. 아빠는 우주 생물학자니까 페리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모르고,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았다. 하지만 케이틀린의 예상과 달리, 엄마는 페리지를 본 순간 괴성을 지르고 기겁을 했다. 특히 페리지가 원하면 개구리든 고양이든 겉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과, 몸이 자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사실에 엄마는 페리지를 괴물로 취급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말았다.

케이틀린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어른들은 페리지를 없애버려야 할 이상한 존재로만 여겼다. 엄마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군인들까지 성에 출동하자, 페리지는 잔뜩 겁을 집어 먹고 달아났다. 게다가 궁지에 몰린 탓인지, 너무 커져버린 덩치로 가는 길목에서 부딪히는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페리지를 더욱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페리지와 다정하게 함께 살려던 케이틀린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이대로 페리지를 버려야 할까? 케이틀린은 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곁에 있어준 페리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 먹고, 마침내 집을 나선다. 사람들이 페리지를 더 괴롭히기 전에, 먼저 찾아서 흥분한 페리지를 진정시키고 달래야 한다. 마음 나눌 곳이 하나도 없던 소녀와 외계 생명체의 아주 특별한 우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 소개>

로스 몽고메리(Ross Montgomery)는 초등학교 교사로, 런던에 살면서 틈틈이 아동 소설을 쓰고 있다. 전작 『Alex, the Dog and the Unopenable Door』 와 『The Tornado Chasers』로 ‘코스타 도서 상(Costa Book Award)’ 결선에 진출했으며 ‘브랜포드 보애스 상(Bransford Boase Award)’에도 후보로 선정됐다.

제목 : TELL ME THREE THINGS

가제 : 세 가지만 말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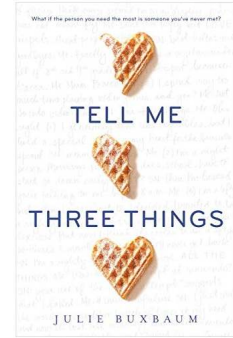
저자 : Julie Buxbaum

출판사: Delacorte Press

발행일: 2016년 4월 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어느 날 갑자기 사는 곳도, 학교도 바뀌어버린 제시에게 선뜻 손을 내민 익명의 남학생

전교생 대부분이 로스앤젤리스 부유층 자제들인 우드밸리 고등학교에 어쩔 수 없이 첫 발을 들인 제시는 등교한지 단 며칠 만에 얼른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확고해졌다. 요가 수업이 며 명상 강좌도 있고,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에 누구나 들러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휴식 공간까지 있어서 언뜻 보면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학교처럼 보이지만, 그곳은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전쟁터나 다름 없었다. 특히나 금발을 휘날리며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매고 흥 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몸매와 미모를 뽐내는 여학생들 사이에 섞여 있자니 제시로선 고역이 따로 없었다. 지금껏 그런 화려한 삶은 살아본 적도 없을뿐더러 꿈꿔본 적도 없었기에 늘 집으로 여겨온 시카고를 떠난 것으로도 모자라 이런 낯선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굳힌 날, 제시는 알쏭달쏭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의 이름은 '아무도 아닌 누군가', 메일 제목은 '우드밸리 고등학교에서 당신의 영혼을 이끌어줄 가이드로부터'인 그 이메일은 온통 황당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제시의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733일 째 되던 날이자 아빠가 웬 낯선 여자와 눈이 맞아 고향 집을 버리고 제시까지 끌고 캘리포니아로 이사온 지 45일 째 되던 날, 그리고 도무지 적응할 수 없는 학교에 등교한지 7일째 되던 날의 일이었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실명은 절대 밝힐 수 없다는 사실부터 밝히고,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제시가 이 학교의 아무 생각 없는 부잣집 아이들과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제시와 열여섯 동갑내기인 같은 학교 남학생이고, 다른 건 몰라도 야생과 다름없는 학교 생활에서 무사히 살아남는 방법은 제대로 알고 있으니 제시를 도와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정체에 관한 것만 아니라면 무엇이든 물어봐도 좋고, 질문을 하면 성심 성의껏 답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우드밸리 고등학교에서 친구로 사귄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학교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카페테리아에서 야채 버거를 먹는 일 등), 까다롭기로 소문난 스튜어트 선생님의 수업에서 성적 잘 받는 법 등 모든 걸 알려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사람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라면? 십대들의 기발한 우정

대체 누가 이런 메일을 보냈을까? 어수룩해 보이는 전학생인 제시를 골탕 먹이려는 교활한 속임수는 아닐까? 제시는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친한 친구는커녕 아빠 말고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낯선 도시에서,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을 거절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했다. 제시는 일단 속는 셈치고 이 익명의 친구가 제안한 도움을 받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아무도 아닌 누군가’와 제시는 이메일로 학교 생활의 거의 모든 일을 공유하기 시작한다.

익명의 가이드 덕분에 제시는 도망치고만 싶었던 학교에 서서히 적응하고, 그의 조언대로 괜찮은 친구들도 만든다. 하지만 시작부터 예감했듯이,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똥하게 굴고,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아무 것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던 새엄마의 아들 테오일까? 영어 수업 시간에 대뜸 제시에게 과제를 함께 하고 싶다고 손을 내민 잘생긴 이튼일까?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서점 사장님의 끝내주게 멋진 아들 리암일까? 리암의 여자친구가 제시를 싫어하고 사사건건 못살게 구는 것도 혹시 리암이 남몰래 자신을 도와주고 있어서는 아닐까? ‘아무도 아닌 누군가’의 정체를 알고 싶은 나날이 커지는데, 그는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에는 차라리 모르는 채로 두는 것이 더 나은 비밀도 있는 건 아닐까?

제시의 실제 학교생활과 익명의 친구와 나누는 이메일이 번갈아 가며 등장하는 구성이 읽는 재미를 더하고, 이메일 발신자의 정체는 이야기가 거의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드러나지 않아 독자의 호기심을 끊임 없이 자극한다.

<저자 소개>

줄리 뷁스바움(Julie Buxbaum)은 로스앤젤리스에서 소설을 집필하고 있다. 전작인 『The Opposite of Love』, 『After You』는 큰 호평을 받았고, 25개 언어로 번역됐다.